

# 김기현 원내대표 형제 비리의혹 사건 관련 사건일지 및 녹취록

## □ 주요 사건 일지

- 2010년 : 계약 4년전, 김흥태는 북구 신천동 아파트 사업 시행권 기(既)상실 상태  
- 경쟁업체 A사가 사업 시행권 확보 상태 (출처: 뉴스타파 2019년 12월 17일자)
- 2014년 3월 26일 : 김삼현&김흥태, 아파트 사업 시행권, 분양 관련 30억원 계약  
- 김흥태 주장 : 아파트 시행권 찾아오는데 도우면 김삼현에게 30억 지급, 김삼현이 계약서 초안 작성 (출처: 뉴스타파 2019년 12월 17일자)  
- 김삼현 주장 : 김흥태가 아파트 시행권 있다고 자신을 속였다는 취지로 경찰과 검찰에 진술,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근거로 활용
- 2014년 4월 28일 : 김삼현이 김흥태에게 문자 보냄 [‘참조4’ 참고]
- 2017년 : 김삼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본격 수사
- 2018년 1월 : 김흥태,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김삼현 고발(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
- 2018년 초 : 자유한국당 고발, 청와대-황운하-송철호로 이어지는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
- 2018년 3월 : 김기현 측, 김흥태와 경찰관계자 고발
- 2018년 3월 27일 : 김삼현 체포영장 발부 한참 후에 울산경찰청 출석
- 2018년 3월 30일 : 울산검찰청, 김삼현 구속영장 울산지법 실질심사 기각(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 2018년 5월 : 김기현 측, 김흥태와 황운하 고발
- 2018년 5~11월 : 검찰, 김흥태 주변인물 별건 수사
- 2018년 5월 : 강석주(김흥태 사업파트너) 뉴스타파 인터뷰, “2018년 5월 경부터 검찰 관계자가 ‘김흥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같은 표현을 쓰면서 집요하게 요구했다.”말함.(뉴스타파 2020년1월3일자)
- 2018년 7월 16일자 : 변호사 의견서 / 울산지방경찰청은, 김삼현이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D건설을 압박하여 신천동 아파트 사업시행사를 김흥태로 변경해 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지급 받기로 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내용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였으나, 울산지검 불기소결정서 (출처: 뉴스타파 2019년 12월 17일자, 2020년 10월 15일자)

- 김삼현이 고용한 변호가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김흥태와 김삼현 사이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김삼현 씨가 김흥태 씨에게 사업권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면합의’한 것을 시인한 것임.
- 허나, 검찰은 문제 삼지 않음, 김기현 전 시장이나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무관한 것으로 핵심이 아니라는 의견
- 경찰 의견서 내용(2018.7.16.) : 2019년 검찰불기소 결정서 내부의 내용

**[울산 경찰 의견서(2018.7.16.) : 2019년 검찰불기소 결정서 내에 포함된 내용]**

“김삼현 씨와 김흥태 씨가 도장을 찍은 계약서에 적힌 30억 원의 대가는 아파트 분양업무를 돕는 것이었지만, 김삼현 씨가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문서에는 아파트 사업시행사를 김흥태 씨로 변경해 주기로 한 대가라고 기재돼 있다.”

(출처 : 뉴스타파 2020년 10월 15일자)

**2018년 말** : 김흥태 인터뷰(증언),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던 2018년 말부터 검찰이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청장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비리를 진술하도록 회유, 협박했다.(뉴스타파 2020년1월3일자)

**2018년 12월** : 김흥태, 사기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

**2018년 12월** : 김흥태 인터뷰(증언) 12월 구속된 후 5~6개월 동안, “2018년 12월 구속된 뒤 70번 가량 검찰에 불러나가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내 구속 사유인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 않았다. 주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관련된 질문들이었다. ‘왜 황 청장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팀을 교체했느냐’, ‘황 청장이 어떤 부탁을 들어줬는지 얘기 해라’,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일부러 김기현 관련 의혹을 고발한 것이 아니냐’ 같은 질문이었다. 모두 내가 구속된 이유인 사기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었다.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관련 비리 사실을 진술하면 풀어주겠다”는 식의 회유와 협박을 반복했다고도 주장했다. “송철호 시장이나 황운하 청장은 ‘쳐 먹고 늘어져 있는데 왜 당신만 여기 구속돼 있느냐, 빨리 나가서 하던 사업을 계속해야 하지 않느냐’ 같은 말을 하면서 회유했다. 특히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 될 사람이 시장이 되어 먹고 늘어지고 있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그 사람들의 비리를 폭로해도 나는 처벌받지 않을테니 걱정말고 얘기하라는 식이었다.” 김흥태 씨는 심지어 검찰이 자신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그게 뭘 말하는 것인지 몰라 물어 보니 ‘검사들끼리는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담당 검사는 또 ‘수사에 협조를 하면 형량을 최대한 낮춰주고 아니면 최대한 높이겠다’고 자신의 권한을 설명했다.

(출처 : 뉴스타파 2020년1월3일자)

**2018년 12월** : 검찰의 별건 수사로 구속된 뒤 검찰청에서 자해를 시도, 그의 왼쪽 팔목에는 지금도 당시 생긴 세 줄의 칼자국이 고스란히 흉터로 남아 있었다. 김 씨는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 본 적이 없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람을 잡아 넣는다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때는 정말 다 폭발시켜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타파 2020년1월3일자)

**2018년 12월~2019년 5월** : 김흥태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김 씨의 검찰 출정기록을 입수해 확인, 그 결과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5개월 동안 50번 넘게 검찰에 출정해 조사받은 사실 확인

(출처 : 뉴스타파 2020년1월3일자)

**2019년 4월 9일** : 김삼현 검찰 불기소결정서(핵심 참고인 진술 번복), 김흥태 씨 주장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출처 : 뉴스타파 2020년10월15일자)

[참조1] 검찰 불기소결정서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김모 씨	김삼현이 김기현을 통해 D건설을 압박, A사가 허가를 받지 못하면 D건설이 김흥태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윤모 씨	김삼현이 김기현을 통해 D건설을 압박, A사와 계약 연장을 못하게 하고, 안되면 김기현을 통해 울산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A사가 허가를 못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삼현이 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그 형이 김기현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출처 : 뉴스타파 2019년 4월 9일자)

[참조2] 검찰 김모 수사관, 김흥태 지인 5명에게 전화

검찰, 김기현 측 비리 대신 고발인 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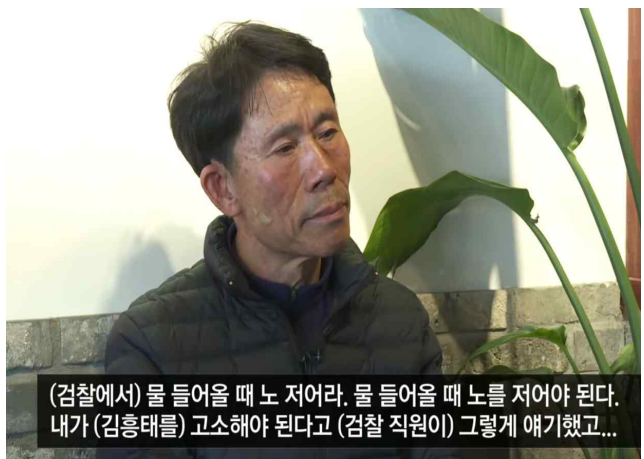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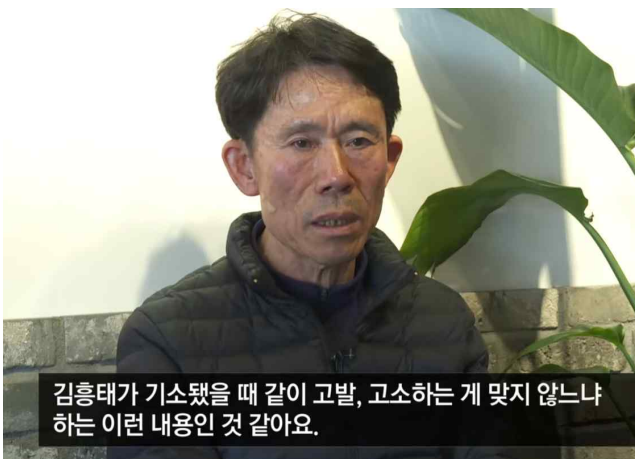
**검찰수사관 음성파일공개**

김모 수사관 / 울산지검

'30억 불법계약' 당사자  
건설업자 김흥태 지인들

(출처 : 뉴스타파 2019년 12월 27일자)

■ 강석주/김흥태 지인 증언



(출처 : 뉴스타파 2019년 12월 27일자)

## ■ 고발인 김흥태 씨 지인과 검찰 수사관 대화 녹취록

(뉴스타파, 2019년 12월 27일자) [남성1(000), 여성1(박모씨), 남성2(강석주)]

<p>[검찰 수사관] 그렇게 회피하면 피해가 회복돼요? [남성1] : 아니 그러니까, 고소하는 거는...</p>	<p>그렇게 회피하면 피해가 회복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고소 하는 거는...</p>
<p>[여성1] 아, 근데 어디세요. 거기 어디세요? [검찰 수사관] 검찰청이라고 얘기했잖아요</p>	<p>아, 근데 여보세요. 거기 어디세요? 검찰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검찰청에서 왜 이런 거 저한테 얘기해요? 개인적인 사생활인데?</p>
<p>[여성1] 검찰청에서 왜 이런 거 저한테 얘기해요?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그럼 저는 왜 얼굴도 모르시는 분한테 제 채무라든지...</p>	<p>박 모 씨 / 김흥태 지인 그럼 저는 왜 얼굴도 모르시는 분한테 제 채무라든지.. 김 모 수사관 / 울산지검 제가 물어 보잖아요 지금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그런 게 있고</p>
<p>[검찰 수사관] 제가 물어 보잖아요. 지금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그런 게 있고</p>	<p>김 모 수사관 / 울산지검 000 씨가 전화를 하니 000 씨가 돈을 투자를 했고 4천만 원을 못 받고 있다 하니까</p>
<p>[검찰 수사관] 000씨가 전화를 하니 000씨가 돈을 투자를 했고 4천만 원을 못 받고 있다 하니까...</p>	<p>박 모 씨 / 김흥태 지인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 분이 김 모 수사관 / 울산지검 네 투자를 했다고</p>
<p>[여성1]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 분이</p>	<p>박 모 씨 / 김흥태 지인 그 분이 투자를 했다고요? 그분은 김흥태 사장도 모르는데?</p>
<p>[검찰 수사관] 네 투자를 했다고</p>	<p>박 모 씨 / 김흥태 지인 그 분이 투자를 했다고요? 그분은 김흥태 사장도 모르는데?</p>
<p>[여성1] 그 분이 투자를 했다고요? 그분은 김흥태 사장도 모르는데?</p>	<p>김 모 수사관 / 울산지검 000 씨 말 하고는 다른데 박 모 씨 / 김흥태 지인 통장 거래 내역서 갖다 줘요?</p>
<p>[검찰 수사관] 000씨 말 하고는 다른데</p>	<p>김 모 수사관 / 울산지검 000 씨 말 하고는 다른데 박 모 씨 / 김흥태 지인 통장 거래 내역서 갖다 줘요?</p>
<p>[여성1] 통장 거래 내역서 갖다 줘요?</p>	<p>김 모 수사관 / 울산지검 통장 거래 내역서 갖다 줘요?</p>
<p>[검찰 수사관] 그게 아니고 000씨 말로는 상가에 투자를 했고</p>	<p>김 모 수사관 / 울산지검 그게 아니고 000 씨 말로는 상가에 투자를 했고 박 모 씨 / 김흥태 지인 아 근데 여보세요 거기 어디세요</p>
<p>[여성1] 아, 근데 여보세요. 거기 어디세요?</p>	<p>박 모 씨 / 김흥태 지인 아 근데 여보세요 거기 어디세요</p>
<p>[검찰 수사관] 검찰청이라고 얘기 했잖아요</p>	<p>김 모 수사관 / 울산지검 검찰청이라고 얘기 했잖아요</p>
<p>[여성1] 검찰청에서 왜 이런 거 저한테 얘기해요 개인적인 사생활인데?</p>	<p>박 모 씨 / 김흥태 지인 검찰청에서 왜 이런 거 저한테 얘기해요 개인적인 사생활인데?</p>
<p>[검찰 수사관] 분명히 출석을 거부하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중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 &lt;남성 1&gt;에 대해 협박</p>	<p>김 모 수사관 / 울산지검 분명히 출석을 거부하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중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p>
<p>[남성 2] 김흥태가 기소되었을 때 같이 고발, 고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검찰에서) 물 들어올 때 노 를 저어라.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내가 (김흥태를) 고소해야 된다고 (검찰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고...</p>	<p>김흥태가 기소됐을 때 같이 고발, 고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검찰에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내가 (김흥태를) 고소해야 된다고 (검찰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고...</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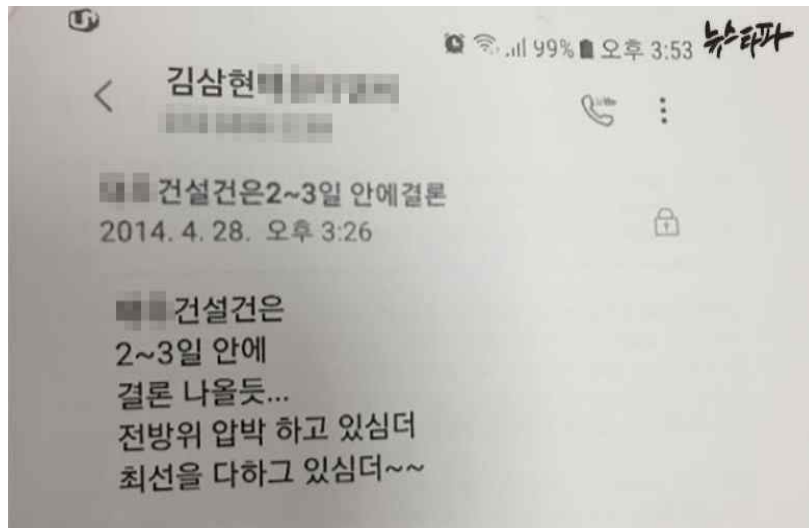


[참조3] 경찰에서 증언이 검찰에 가면 180도 뒤집어져...

- 경찰에서 김모 씨는 “김삼현이 형인 김기현 전 시장의 힘을 빌어 D건설사를 압박, 사업권을 김흥태에게 넘기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수 차례 밝혔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180도 뒤집는다.
- 윤 씨 역시 경찰에서는 “김삼현이 김기현을 통해 D건설을 압박해서 A사와의 시행계약 연장을 못하도록 하고 D건설이 시행사를 바꾸지 않더라도 김기현을 통해 울산시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A사의 사업인허가 신청을 받아들이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이 진술을 부인했다. 특히 윤 씨는 검찰에서 ‘김삼현의 형이라고 했지, 그 형이 김기현 전 시장이라고 특정한 적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진술을 번복, 검찰은 윤 씨의 바뀐 진술을 토대로 “김삼현 씨가 형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청탁 관련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출처: 뉴스타파 2019년 12월 17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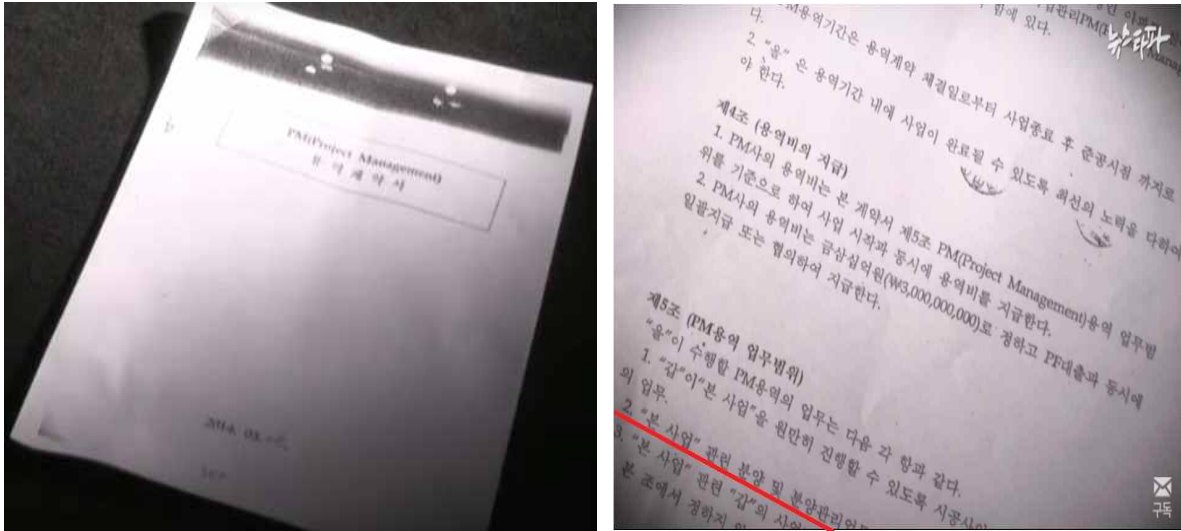
[참조4] 2014년 4월 28일에 김삼현이 김흥태에게 보낸 문자 내용



(출처: 뉴스타파 2019년 12월 17일자)

- “D건설은 2~3일 안에 결론 나올 듯.. 전방위 압박 하고 있심더 최선을 다하고 있심더~~”
- [뉴스타파] 김삼현 씨가 김흥태 씨와 적대적인 관계인 D건설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참조5] 김삼현과 김흥태 사이의 계약서 (2014년 3월)



<https://newstapa.org/article/d4Ppk>

(출처 : 뉴스타파 2019년 12월 27일자)

[울산 경찰 의견서(2018.7.16.) : 2019년 검찰불기소 결정서 내에 포함된 내용]

2019년 4월 만들어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울산 경찰이 2018년 7월 16일 의견서를 검찰에 냈다”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그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 소개돼 있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김삼현 씨와 김흥태 씨가 도장을 찍은 계약서에 적힌 30억 원의 대가는 아파트 분양업무를 돕는 것이었지만, 김삼현 씨가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문서에는 아파트 사업 시행사를 김흥태 씨로 변경해 주기로 한 대가라고 기재돼 있다.”

- 경찰 의견서 내용 (2018.7.16.)

(출처 : 뉴스타파 2020년 10월 15일자)

[참조6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와 이에 대한 경찰의 반박 입장문 내용 비교

김흥태 입장	'30억 용역계약서' 체결(2014.3.26)	김삼현(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입장
<p>계약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기 위한 요식 행위이다.</p> <p>아파트 사업권 및 울산시의 인허가 문제를 김삼현 측이 해결해 주는 대가로 김삼현에게 30억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것.</p>		<p>김흥태에게 아파트 사업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p> <p>김흥태에게 속아서 분양사업을 도와주기로 하고 계약 체결.</p> <p>아파트 사업권을 주거나 울산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다.</p>

(출처: 뉴스타파 2019년 12월 17일자)